

2 뉴스클리핑

1. 국내외 반도체산업 주요 뉴스

▶ 반도체 올 551조 큰장 선다... 석달만에 시장 전망치 또 상향

원문보기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지난해보다 11.2% 증가한 5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가 3개월 만에 시장 전망치를 다시 끌어올렸다. 완제품 업계의 반도체 러브콜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일부 공장이 기후변화로 생산 차질을 빚는 등 반도체 쇼티지(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자율주행 신차 D램 용량 급증"...차량용 메모리 시장 급성장

원문보기

12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차량에 들어가는 D램 평균 용량이 올해 4GB로 지난 2019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오는 2024년에는 평균 8GB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 스마트폰·TV 비싸진다"...파운드리 이어 팹리스도 가격 인상

원문보기

반도체 부족 사태가 정보기술(IT) 시장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수요와 공급 불균형은 반도체 몸값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수탁생산(파운드리) 이어 반도체 설계(팹리스)와 완제품 업계도 가격 인상 영향권에 들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퀄컴, 실리콘웍스 등이 칩 가격을 올리고 있다. 제품에 따라 10~20% 수준의 인상을 을 보인다.

▶ "1년 전 주문한 칩 이제 도착"...반도체 부족 얼마나 심각하길래

원문보기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구형 모델 생산 중단, 반도체 외주 확대 및 공급사 변경 등 다방면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삼성전자와 TSMC 등 대형 반도체 제조사의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시장조사업체 IHS마켓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전 세계 반도체 부품의 약 75%는 전년 대비 리드 타임(주문 후 조달까지 걸리는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애플 독일 반도체 센터 10억유로 투자...유럽 반도체 판 커지나

원문보기

애플은 앞으로 3년간 10억 유로를 투자해 뮌헨 R&D 센터를 확대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애플은 새로운 시설이 유럽 최대의 모바일 무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시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곳에서는 5G를 비롯해 미래 무선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된다. 또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무선 모뎀을 개발한다.

▶ 시스템 반도체도 선택과 집중을...대만과 환경 달라, 한국식 발전모델 만들어야

원문보기

"수천 가지 시스템 반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세분화해 육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